

2020 세계일보
문학평론 부문 당선자
김정빈 동문을 만나보았다.



인권센터가 지난 2월 설립됐지만 여전히 준비단계에 머물러있다.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대학주보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에서 '경희를 봄' 행사를 진행했다. '경희를 봄' 행사는 지난 5월과 6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다. 서울캠퍼스도 4월 11일, 12일 양일에 걸쳐 동아리 공연 및 영화 상영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김나형 기자)

'대면' 축제 3년 만에 부활하나

천민주 기자 cheonminju03@knu.ac.kr
장비슬 기자 eva6155@knu.ac.kr

다가오는 서울캠퍼스(서울캠) 축제가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된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축제는 변경되는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현행 거리두기 방안에 따르면, 대학 축제는 학내 행사 집합 모임 조치를 따른다. 이는 사적인 친목 도모가 아니되, 학교로부터 승인받은 행사를 포함한다. 해당 내용에 따라 우리학교 축제 또한 대면으로 진행될 경우 접종 여부 관련 없이 299명까지로 인원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서울캠 총학생회(총학) 측은 “과거에 진행했던 축제와 같이 부스를 설치하고 연예인을 섭외해 대규모 공연을 진행하는 축제는 이번 학기 계획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축제 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동아리 공연이나 총학 차원의 소규모 부스 또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 외에도 ‘K y u n g H e e Blossom-본관 벚꽃 문화제’ 행사가 준비 중에 있다. 최성주(조리 서비스경영 2019) 문화기획처장은 “무대 객석에 스티커를 부착해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수용인원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현장 스태프를 배치하여 취식과 음주를 단속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국제캠 축제는 방역수칙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국제캠 총학은 “방역수칙이 완화된다면 허가하는 한도 내에서 기존 명성에 걸맞은 축제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이번 ‘경희를 봄’ 행사를 진행하면서 대면 행사에 대한 학우들의 갈망을 체감했다”며 대면 축제에 대한 의지를 비쳤다.

‘수료생’ 신분 국제 총학 ‘ON’ 임기연장

이태영 기자 ysmhip6@knu.ac.kr
이동건 기자 ehdrijs3589@knu.ac.kr

총학회원·피선거권자
‘재학생’ 만 해당돼
ON 회장단 ‘수료생’ 신분
전 회장, “최소한의 권한 행
사만 할 것”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 ON의 임기연장이 지난달 24일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 인준됐다. ON 총학의 연장된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지난달 24일 열린 중운위에서 총학 임기연장이 인준됐다. 총학에 따르면,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경우 당해 연도 중운위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대신 직전에 임기를 수행한 총학의 임기연장을 의결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인 국제대학 박병준(국제학 2017) 학생회장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단과대학 학생회장과 총학 비상대책

위원장(비대위장)을 병행하는 것 이 매우 어렵고, 총학 업무를 병행할 경우 본인의 단과대학 업무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곤란했음을 설명했다. 이어 박 회장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 시 대학본부 혹은 그 이상의 단체와 협의할 때 분명한 한계가 있기에 (ON 총학의) 임기연장에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학생 신분이 아닌 전완주(일본어학 2015) 총학생회장과 김정환(디지털콘텐츠학 2015) 부총학생회장이 재학생의 대표자로서 대표성을 떨 수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 회장은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김 부회장은 지난 2월을 기점으로 학적 상태가 재학에서 수료로 전환된 상태다. 수료생은 정규학기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재학생으로 볼 수 없다.

또 회칙에서 규정하는 총학 회원과 선거 및 피선거권의 주체는 ‘재학생’으로 한정해 학칙 해석에 관

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회칙엔 피선거권자가 재학생이어야 한다는 내용만 명시돼있을 뿐 총학 임기연장자가 재학생 신분이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는 않다. 총학 회원의 자격과 선거 및 피선거권의 주체를 재학생으로 한정한 회칙 조항의 제정 취지와 조항들 사이의 체계성을 고려했을 때 수료자 신분인 전 회장과 김 부회장의 임기연장이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시비가 불거질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전 회장은 “재학 상태를 유지하면서 학생대표단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보니, 학생대표단이 당선된 후 휴학하는 등 재학 상태에서 벗어나는 사례는 워낙 많이 일어나고 일종의 관행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회장은 “재학 상태에서만 학생대표단의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는 원리원칙에 따른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몇몇 학교처럼 휴학했다고 해서 학생대표단의 권한을 뺏는 것은 가혹하다

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통용하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 회장은 “(피선거권이나 총학 회원 자격 등의) 명시된 원칙이 있다 보니까 다른 학생회 동료들이 실무적인 일을 겨우다 담당하면, 회장단은 이렇다 할 권한을 행사할 것 없이 확인만 하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이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ON 총학의 임기연장을 두고 학생 사회의 여론은 엇갈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민성(유전공학 2020) 씨는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도 없고, 중운위원 중에서 선뜻 총학 비대위장을 하겠다는 사람도 없었다면 회칙에 따라 지난 총학이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다”며 “기왕 임기연장이 확정된 만큼 지난 해와 같은 구설수 없이 학생 사회의 여론을 잘 대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4면으로 이어짐